

2013 제18회 정기공연

시조로 만나는 사계절의 흥취

전국 시조지방문화재보유자 초청공연

(완제, 내포제, 영제, 경제, 석암제)



일시 : 2013년 11월 8일 (금) 오후 7시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주최 : 한얼정악연구소

후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부산국악협회, 부산시조시인협회, 어린이시조나라사람들
전국청소년시조예술제운영위원회

한얼정악연구소 활동 내역

- 1990년 ~ 1996년 부산 초·중·고등학교 학생 순회(시조창 무료지도)
- 1990년 ~ 1996년 부산 초·중·고등학교 교사(시조창 무료강습회)
- 1992년 ~ 2013년 제 1회~21회 전국청소년예술제시조경청대회, 주관
- 1996년 ~ 부산·강원도 교원연수원 국어과 직무·일반 연수 시조창 강의
- 1997년 전국교육연구원 공동과제 시조창지도서 및 시조창의 지도 영상제작 (부산교육연구원 주관)
- 1997년 ~ 200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6개 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시조창 순회 강의)
- 1997년 ~ 2004년 부산 동래·남부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 2000년 ~ 부산교육청 「초·중·고」 교사 및 학생 대상, 정가(正歌) 지도 (성남초등학교전통문화교실)
- 2001년 ~ 2012년 부산교육청어린이 예능대회에 시조창부문 개척을 주도함
- 2004년 ~ 현 부산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초·중·고」 교사 시조창 직무연수

* 부산 불교라디오방송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열며' (시조창 한마당) 주 1회 30분 생방송 9년 동안 출연

공연 내용

※ 우리나라 최초로 「시조창·무·극」 결합, 매년 정기 공연

- 1995년 10월 7일 제 1회 「청산리벽계수야」 (부산문화회관)
 - 1996년 12월 7일 제 2회 「이화우 흥남잡지」 (부산문화회관)
 - 1997년 12월 20일 제 3회 「생활속의 시조문화」 (부산문화회관)
 - 1998년 12월 12일 제 4회 「정민경정가발표」 (부산문화회관)
 - 2000년 2월 12일 제 5회 「꿈단이 시집가는 날」 (부산문화회관)
 - 2001년 11월 29일 제 6회 「뭇버들 가려져야」 (부산문화회관)
 - 2002년 12월 21일 제 7회 「종귀팔귀」 (부산문화회관)
 - 2003년 12월 7일 제 8회 「흥부 놀부」 (부산문화회관)
 - 2004년 12월 12일 제 9회 「얼어저리 어미 얼어저리」 (부산문화회관)
 - 2005년 12월 3일 제10회 「함사세요 함사」 (부산문화회관)
 - 2006년 12월 2일 제11회 「정가의 진수와 한국인의 멋」 (부산문화회관)
 - 2007년 11월 27일 제12회 「동짓달 기나긴밤을」 (부산문화회관)
 - 2008년 11월 11일 제13회 「공룡거리는 시어에 웃음 입히다」 (부산문화회관)
 - 2009년 12월 11일 제14회 「음률로 피어나는 우리 얼 우리몸짓」 (부산문화회관)
 - 2010년 11월 27일 제15회 「시조 30년 정민경 정가(正歌) 무대」 (부산문화회관)
 - 2011년 6월 10일 「우리 얼 우리가라」 정가(正歌) 12가사 정민경 발표무대(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 2011년 11월 4일 제16회 「시조로 풀어내는 한국인의 멋 품류」 (국립부산국악원대극장)
 - 2012년 4월 7일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정민경 12가사 발표무대」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 2012년 11월 17일 제17회 「천년의 소리 정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부산시립국악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협연, 토요일 상설무대 등 다수

한얼정악연구소
 010-3870-8397 hanel21@hanmail.net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사 회



이 민 화
남성초등학교교사
시조시인

1부

영 제(봄) 이 종 룩

- 1) 평시조(청산은 나를 보고)
- 2) 사설시조(명년삼월에 오시마더니)

완 제(여름) 오 종 수

- 1) 우 시조(나비아)
- 2) 남창지름시조(푸른산중 백발옹이)

석암제(가을) 정 인 경

- 1) 중허리시조(입그린 상사옹이)
- 2) 지름시조(백사장이 어분 어분커늘)

경 제(겨울) 문 현

- 1) 평시조(동짓달 기나긴 밤을)
- 2) 우조지름시조(석인이승)

홍 치 김 연 소

- 1) 사설시조(부소산)
- 2) 유희지름시조(학타고)

2부

어린이 시조 합창 김 민 정, 공 기 은, 정 예 진

- 1) 평시조(아버이 살아 실제)

박 해 립, 이 예 진, 김 수 아
박 시 현, 제 승 하, 송 윤 서
김 다 은, 백 유 민, 문 송 미
김 준 영, 이 상 원, 이 수 민
김 민 서, 김 민 재, 하 은 찬

어린이 시조 합창 김 희 준

- 2) 은 지름시조(한산섬)

3부

죽 지 사 이 회 재

매 화 가 박 수 진, 정 유 정

「時調의 유래」

시조는 고려 인종 때 문신인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鄭瓜亭曲)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임금에게 총애를 받던 정서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고향 동래에서 귀양살이를 했는데, 연모하는 임금을 그리며 지은 곡인 삼진작(만대엽·중대엽·삭대엽)을 말한다. 그 삼진작중 만대엽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 고려 말엽에 소멸되었다 하며, 중대엽은 조선조 초기까지 불리워 오다가 소멸되고 삭대엽만 남아 두거, 평거, 우락 등 여러곡으로 파생되어 불렀는데 그것을 우락시조와 계락시조라 했다. 이후 조선 영조시대에 가객 이세춘이 왜 우락시조와 계면시조는 있는데 평조로 부르는 시조는 없을까 하여 평조가락에 장단을 붙여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 평조시조를 즐겨 부르니, 앞서 부르던 우락시조와 계락시조는 가곡으로 칭하고, 평조시조는 평시조라 하며 분리되었다 한다. 가장 오래된 문헌의 기록으로 영조시대의 학자 신헌수의 「석북집(石北集) 관서악부」에 다음과 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초창문개설대진 初唱聞皆說太眞 / 지금여한마외진 至今如恨馬嵬塵
일반시조배장단 一般時調排長短 / 내자장안이세춘 來自長安李世春

「일반 시조에 장단을 배열한 것은 영조 때 서울에서 온 이세춘으로부터 비롯한다」라는 위의 시를 근거로 보아 시조는 영조 무렵에 틀어 짜여진듯하다.

「계승과 발전」

우리 국악은 크게는 정가와 속가로 나뉜다. 「판소리·민요·잡가」는 속하고, 가곡·가사·시조」는 정가에 속하는데, 가곡·가사는 주로 전문 가객들이 불렀고 시조는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렀던 대중노래다. 평시조로만 불리던 시조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러 곡이 생겨나 현재 12곡이 전해져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전통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시조는 뜻있는 분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해방이 되어 자유롭게 부르게 되면서 각 지방에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며 그 지방의 방언처럼 특성을 살려가며 조금씩 다르게 부르게 되었다. 전라도 지방에서 부르는 것을 완제, 충청도 내포제, 서울·경기 경제, 경상도 지방에서 부르는 시조는 영제라 한다. 이후 석암 정경태선생이 누구나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선율선의 악보에 각 지방제의 시조를, 장점을 살려 채보하여 편찬해 전국에 배포하니, 그 악보를 보고 부르는 이들이 늘어나 이것을 석암제시조라 한다.

(현재 전주대사습, 일방물국악제등 전국의 권위있는 대회의 대다수가 석암제를 기준으로 전국시조경향대회가 열리고 있음)



그동안 부산 시민들의 성원속에 한얼정악연구소에서 올리는 정가 공연이 18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무대 공연은 정가(正歌) 특히 시조의 대중화를 위해 극과 춤, 영상을 도입하여 관객의 감상을 돕는 무대였습니다만, 이번 무대는 시조창의 진수를 보여드리고자 전국의 시조보유자 초청무대입니다. 시조는 우리 국악 중 가곡·가사와 같이 정가에 속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곡·가사와 달리, 누구나 부르면 노래입니다. '시(時)에서 정감(情感)이 일어나고 예(禮)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악(樂)에서 인격을 완성한다' 는 성현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은 시조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안정된 가락에 자신의 정서를 사실로 담아내며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즐겼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는 전국 각 지방의 시조문화재보유자들이 한 무대에서 각 지방제의 전승되어오고 있는 시조의 향기를 사계절의 흥취에 담아 내고자합니다.

1부, '시조로 만나는 사계절의 흥취' 로 영제 보유자 이종록님이 '평시조(청산이 나뭇 보고)' 와 '사설시조(명년삼월)' 을 완제시조보유자 오종수님이 '우시조(나비아 청산가자)' 와 '남창지름시조(푸른 산중 백발옹이)' 문화재 41호 이수자 정인경이 '중허리시조(임그린)' 과 '지름시조(벽사창이)' 를, 국립국악원정악단지도위원이신 분현님이 경제 '평시조(동짓달 기나긴밤을)' 과 '우조지름시조(석인이승)' 내포제시조보유자 김연소님이 '사설시조(부소산)' 과 '유음지름시조(학타고)' 를 부릅니다.

2부, 어린이 시조무대로 어린이시조합창의 '평시조(아버이 살아 실제)' 와 김희준어린이의 '은 지름시조(한산섬)' 과 3부, 가사는 국립부산국악원 정가단원 이희재의 '죽지사' 와 박수진 정유정의 '매화가' 로 막을 내립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의 시조 보유자를 모셔서 올리는 무대이니, 부산 시민들께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영제 (불)

경상남도의 특색에 따라 기질이 굳세며 여운이 남고, 구성진 부분있다.

- 1) 평시조(청산은 나뭇 보고)
청산은 나뭇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뭇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담옥도 벗어놓고 성념도 벗어놓고
풀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 2) 사설시조(명년삼월에 오시마더니)
명년삼월에 오시마더니, 명년이 한이 없고 삼월도 무궁하다.
양류청 양류황은 청황변색이 몇 번이며,
육창 영도 붉었으니 화개화락이 얼마인고
한단침 벌어다가 장주호침이 잠간되어 풍중상봉 하겠더니,
장장춘일 단단아에 정정반측 잠 못 이뵈 풍불성을 어이하리
가지어 양안원성 제부진하고 아월공산두견성에 겨우 든 잠 다 깨는가 하노라



이종록

경남 무형문화재 제34호 명제시조보유자

완제 (여름)

옛 부침이 많아 흥겹고 사설이 매우 리드미컬하게 이어져 아가자기하다.

- 1) 우 시조(나비아)
나비아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가서 자고가자
꽃에서 푸대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가자
- 2) 남창지름시조(푸른산중 백발옹이)
푸른산중 백발옹이 고요독좌 향남봉이보다
바람 불어 송생슬이요 안개 걷어 학성홍을
주곡제금은 천고한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보다
누구서 선을 적막다하는가 나는 낙무공인가...



오종수

전북무형문화재 제14호 완제시조보유자

석암제 (가을)

사설의 전달이 용이하고, 꾸밈음이 많고 초보자들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선율선 악보에 채보되어 있어 대다수 시조인들이 부르고 있다.

- 1) 중허리시조(임그린 상사몽이)
임그린 상사몽이 실슬의 냇이 되어
추야장 깊은밤에 임외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은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 2) 지름시조(벽사창이 어른 어른겨늘)
벽사창이 어른어른 겨늘 입만 여겨 뿔뿔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 오고 병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져은 일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이보다
마초아 행어 방일세 망정 남우일번 하야라



정인경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이수자 전국시조명창대회대통령상수상자

<반주>

대금



채수만

부산시립국악관현악장



한규석

한양악회 수석단원

집고



심성자

광주정기연구회장



방미연

한일청어머니시조합창단장

경제 (겨울)

경제시조가 지방으로 전파되어 지방제가 생겨난 것으로 본다. 서울에서 많이 불리던 가곡의 가락을 달아 세련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1) 평시조(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서리넣었다가
정든 남 오시는 밤 이어든 굽이굽이 피리라
- 2) 우조지름시조(석인이승)
석인이 이승황학거허니 차지에 공여황학루보다
활학이 일거불부반허니 배운천재공유유보다
청천연 역력한양수이어늘 방초처처영무주이로다
일모향관이 하쳐시오 연파강사이 사인수물하소라



문현

국립국악원창악단 지도위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이수자
문학박사

흥 치

(내포제)소리의 고저 장단 즉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 원금 강유 즉 느리고 빠름과 강하고 부드러움이 자연스럽다. 소절 마디마다 총청도 사투리의 운율이 녹아 있어 정겨움을 느끼게 한다.

- 1) 사설시조(부소산)
부소산 저문 비에 황성이 적막하고 낙화만에 잠든 두견궁아
원혼 짝을 지어 전조사물 꿈꾸느냐 백마강에 잠긴달을
몇 번이나 영휴하며 고관사 효종소리 불씨가 알업하다.
수북정 청남하에 꽃 대치는 저 어부야 규암진 귀벽이 예아니나
운소에 나는 저 기러기는 구룡포로 떨어지고 석조에
비친 달은 반공중 솟았으니 부풍팔경이 완연하다
- 2) 위음지름시조(합타고)
합타고 저불고 호로병차고 불로초데고 쌍상투짜고 색동거리
입고 가는 아희야 게 잠 섰거라 말 물어보자 요지연 좌격들이
누구누구 와계신고 내뉘에 선음이 오시니 거기 물어 보시오



김연소

충남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보유자

2부

어린이 시조합창

- 1) 평시조-단체
아버이 살아 살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2) 은 지름시조-김희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무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입성호가는 남의 예를 끝나니



김희준

전국청소년시조예술제
전체대상 부산시장상
부산 교육청어린이
예능대회 교육감상



3부

죽지사 창

- 1) 마루: 건곤이 불로 월장재허니 적막강상이 금백년이로구나
어희야 어희야 이허야어 일심정념은
극락나무이미심으로구나 아무느니라 아무나
- 2) 마루: 책 보다가 창 통방 열치니 감호 동명실 벽구 등 멋다



이희재

국립 부산국악원 정기단원

매화가 창

매화가 옛등결에 불월이 돌아온다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죽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분분하니 필지 말지
허다마는 북경가는 역관들이 당사실을 부부침을 허세
성천이라 등의주를 이리로 점점 저리로 점점 점점
집침 개여 놓고 향손어는 방추들고 또 향손에 물박들고
흐르는 향수를 드림떠 덩석 이리로 활활 저리로 활활
출렁 출렁 안남산에 발남산에 개암을 개암을 심어라
심어라 못다 먹는 저 다람의 인과.



박수진

부산대 국악과 졸업



정유정

부산대 국악과 재